**한국 근현대사 빈칸 예상 문제**

**<9주차>**

1. 프러시아가 ‘nation’에 종족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이후 동양권에서는 (a)으로 번역.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a)이라는 말이 (b)을 대체. 국가에 충성하는 주체를 (b)라고 한다.
2. 개혁운동가들이 지향한 (A)는 왕조국가가 극복된 모습으로, 국내적으로는 ( ), 대외적으로는 ( )이다. 또한 (A)는 반드시 ( )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고종의 (B)는 ( )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왕실이 주도하는 (A)를 추구하였다. 궁궐 내의 특별 기구인 ( )을 설치하였다.
4. (B)는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 ), 무력도발을 노리는 ( ), ( ) 세력과 양반 유생 그리고 농민항쟁에 의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크지 못했다. 또한 (B)는 국가기구의 ( )라는 근대국가 이행의 과제를 역행한다.
5. 갑오개혁기의 국가체제는 “청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끊고 ( )의 기초를 확실히 건설한다.”는 홍범 14조의 내용에 기반했다. 또한 왕권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 )하는 균질적 국민 형상을 지향하여 ( ), ( ), ( )을 하였다. 하지만, ( )의 압력에 의해 ( ) 세력의 입지기반이 굳건하지 못했다.
6. 고종은 왕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인 ( )을 수립하였고 ( )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C)에서는 전제군주제의 ( )을 하였다. 황제권 보호를 위해 국가 기구를 이원화 하여 ( )-군부, ( )-경무청, ( )-예식원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공공적 성격은 약해지고 황제가 국가기구를 ( )했다.
7. 황제권 상징화 작업으로는 ( ), ( ), ( ) 등이 있다.
8. 황제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인 ( )의 강화로 ( ) 만들기를 하였다.
9. (C)와 일본의 제국헌법의 차이점은 ( )의 규정 유무이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은 자유민권 운동 시행 기간 차이에 있다.
10. 황제권과 독립협회는 국가권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각각 ( )중심, ( )중심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둘다 왕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11. ( ) 이후 갑오개혁/독립협회 주도층이 국민국가를 구상하였고 이때 (a) 구상이 전개되었다. (a)는 ( ), ( ), ( )에 따라 구상되었다.